

세번째

정신대해원상생대동국

정신대 할머니들이 뿌린 피와 눈물이 거센 파도가 되어 밀려오는

봄날,
어머니의
소리없는
만가
우리 어머니의



97.5.24(토) 하오 4시~25(일) 상오 7시 (음력 4월18일~19일)
부산 해운대 백사장

주최: 세번째 정신대해원상생대동국 추진위원회, 백산안회제선생 독립정신계승사업회
주관: 민족미학연구원, 부산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예총국분과위원회, 문화와예술을사랑하는가족모임,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 동해안별신굿보존회
후원: 부산일보사, 국제신문사, 부산매일신문사, KBS부산총국, MBC부산방송국, PSB, 부산불교방송국
협찬: 하이트, (주) 흥아, (주) 동광상호신용금고, 영광뜨서

세번째

정신대해원상생대동굿

봄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의 소리없는 만가

연합풍물패 길놀이 (24일 하오 3시)/부산풍물패연합

부산의 젊은 풍물꾼들로 이루어진 연합풍물패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달맞이고개를 타고 동의 지신을, 동백섬을 휘돌아나와 서의지신을, 장산기슭 아래 해운대 본동을 울러 북의 지신을 밟아오고, 동남해 용왕에게 고하는 풍물굿이 바다위에서 함께 울려와 굿판마당(무대)에서 서로 어우러져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사람이 더불어 길을 열 때, 연꾼들이 나래연을 창공에 올려 굿판의 티뒹음을 하늘에 고하면 동래의 학들이 지상에서 무리져 춤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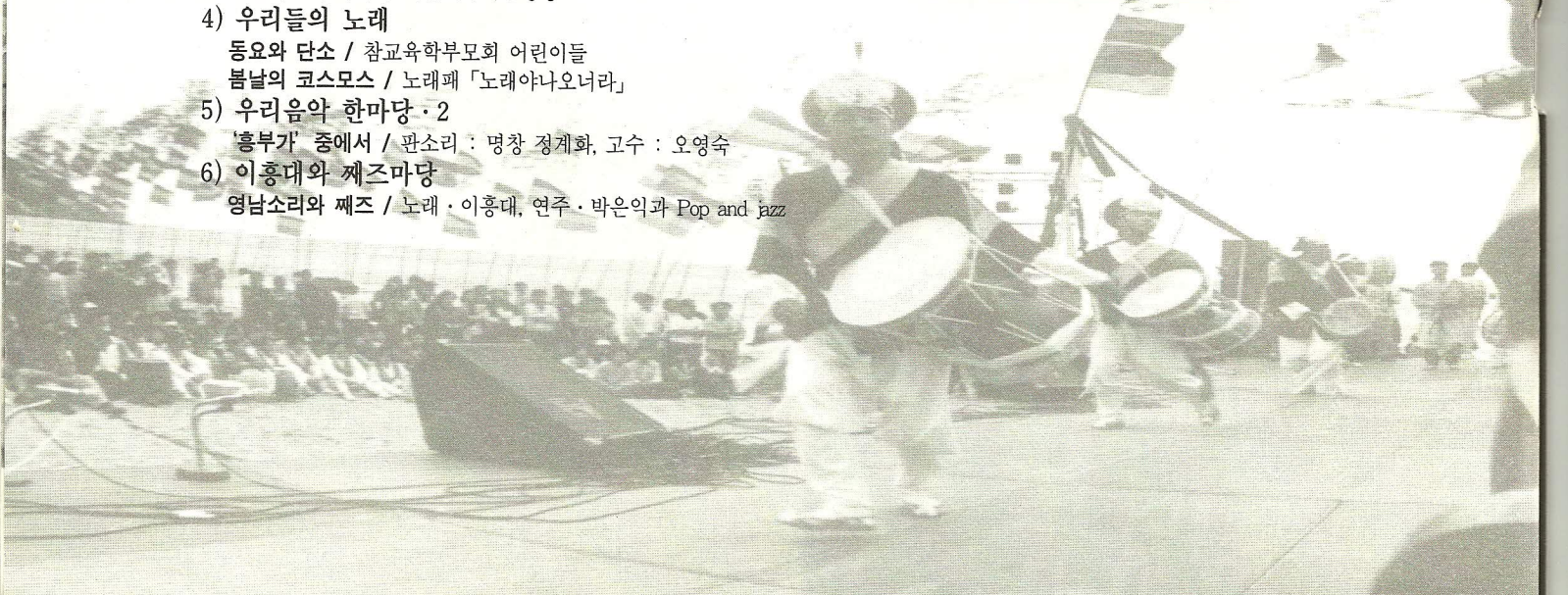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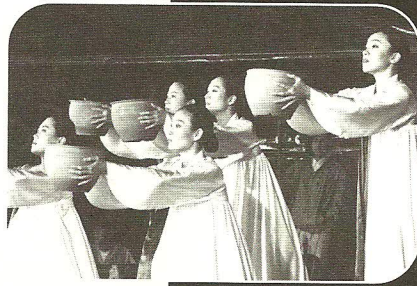
- 오징어잡이배 등 어선, 유람선, 등 해상행렬들 (미포, 우동, 민락동 어촌계, 부산해상개발 유람선 등)
- 동래학춤(부산여자전문대 무용과)
- 연날리기(동의공업전문대학 이선우 교수와 동아리)

1부 열림굿 (24일 하오 4시)

- 1) 대회장 인사말
이정희(광복회 회원)
송정제(백산안회제선생 독립정신계승사업회 회장)
- 2) 열림 대고 북춤
- 3) 열림고사 - 참석내빈
- 4) 정신대할머니 증언 - 이기분 할머니

2부 이야기 노래마당 (24일 하오 5시)

- 1) 열림노래
진혼곡 / 김영남
우리노래 / 김현인
- 2) 열림시
바램 · 2 / 시·김지하, 낭송·임연옥
현화가 / 시·낭송·강은교
- 3) 우리음악 한마당 · 1
죽어서 살아 / 김영남
꽃노래 / 김계자와 어린이가야금병창
- 4) 우리들의 노래
동요와 단소 /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들
봄날의 코스모스 / 노래패 「노래야나오너라」
- 5) 우리음악 한마당 · 2
'홍부가' 중에서 / 판소리 : 명창 정계화, 고수 : 오영숙
- 6) 이흥대와 췌즈마당
영남소리와 췌즈 / 노래 · 이흥대, 연주 · 박은익과 Pop and jazz



- 7) 우리음악 한마당 · 3
태평소 살풀이 / 김광복
- 8) 시낭송
버려진 여자 / 시 · 장정임, 낭송 · 최혜경
맨손 / 시 · 최영철, 낭송 · 임연옥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늘가 / 시 · 신동엽, 낭송 · 문호근
- 9) 북춤, 살풀이 - 오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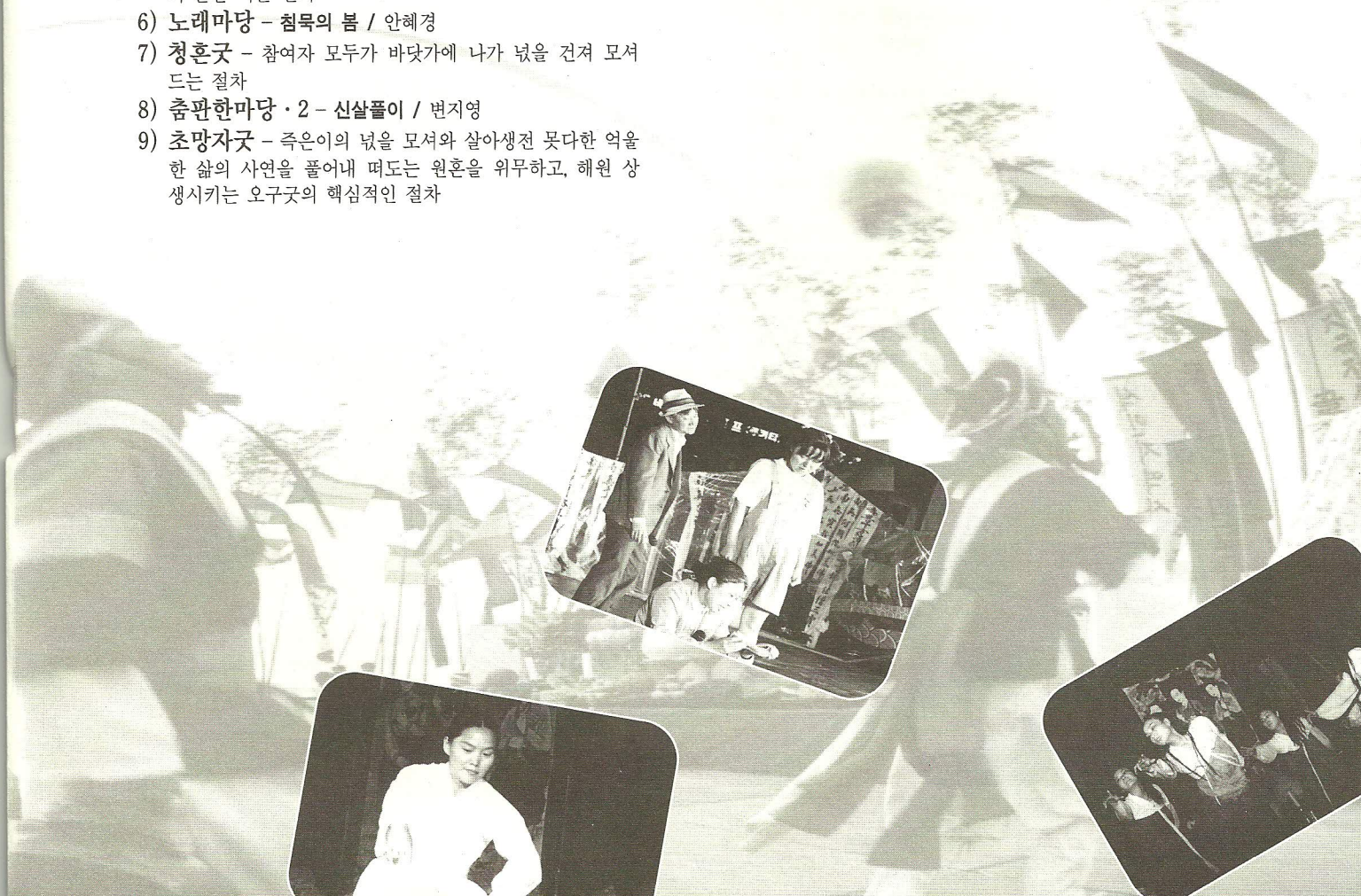
3부 해원상생굿 (24일 하오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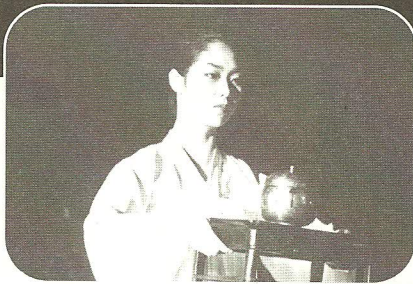
- 1) 특별임 사물농악
동해안별신굿 기능보유자 김석출, 김유선 일행
* 푸너리, 드렁쟁이, 거무장단, 동살풀이, 삼오동장단(35박), 사자풀이 장단으로 엮어내는 특별임 열림판
- 2) 춤판 한마당 · 1
백의 白衣 / 춤패 「배김새」
대본 - 장정임, 안무 - 신은주
출연 - 신은주, 홍이경, 하지훈, 박계영, 박영애, 박정은, 안영주, 정경리, 유운영, 최윤정, 황정옥
*1마당(白-魂) - 빼앗긴 나라 조선, 흰옷의 딸들이 끌려간다.
2마당(白-脈) - 몸은 붉게 짓밟혀도 어머니의, 어머니의 맥을 끝내 놓지 못하는 조선 처녀들.
3마당(白-衣) - 어둡고 추운 죽음 골짜기를 헤메는 서러운 고훈들, 그 여인들에게 누가 있어 피문은 옷에 흰옷을 입혀 한을 풀어줄까. 저기, 조선의 혼들이 죽어 되살아난다.
- 3) 부정굿 - 티를 닦아 정화하는 판씻음 마당
- 4) 골매이굿 - 마을을 연 시조이자 마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골매이 할배, 할매를 모시는 절차
- 5) 문굿 - 무당 모두가 하늘의 신들을 내리우고저승과 극락의 문을 여는 절차
- 6) 노래마당 - 침묵의 봄 / 안혜경
- 7) 칭혼굿 - 참여자 모두가 바닷가에 나가 넋을 건져 모셔 드는 절차
- 8) 춤판한마당 · 2 - 신살풀이 / 변지영
- 9) 초망자굿 - 죽은이의 넋을 모셔와 살아생전 못다한 억울한 삶의 사연을 풀어내 떠도는 원혼을 위무하고, 해원상생시키는 오구굿의 핵심적인 절차

- 10) 마당굿 - 봄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의 소리없는 만가 / 부산극단「자갈치」, 서울놀이패「한두레」
출연 - 마승락, 서지현, 김옥희, 강아림, 이석규, 전종출, 김형구, 최지현, 최승집, 고봄이, 김소영(한두레) 황해순, 전병복, 강미정, 전병석, 노호성, 신은정, 정소윤, 손재서, 전성호, 양종근, 이채현, 김평삼(자갈치)
*중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살아 돌아온 두 할머니의 서로 다른 인생역정과 이들 가족의 애절한 만남,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인물군상들의 상처받은 삶을 통해 중군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해결 전망을 제시해 본 정신대 마당굿.
진상규명, 완전한 배상, 일본의 사죄를 꼭 받아야 한다, 남은 사람들의 다짐 다짐들.
- 11) 조상굿 - 조상신을 위로하고 축원을 비는 절차
- 12) 군웅굿 - 놋동우장수굿 / 징용으로 끌려간 분들을 전쟁터의 장수로 모시고 위무하는 절차
- 13) 춤판한마당 · 3 - 청수한동이 / 춤패「춤누리」
*정화수 한 그릇 모시듯 맑은 물 한동이 길어 모시고 죽어서 살아 새세상을 맞이하는 춤
- 14) 용왕굿 - 용왕님을 받들어 바다에서 죽은 넋을 위한 절차
- 15) 꽃노래 · 뱃노래굿 - 아무 탈없이 좋은 곳 극락세계로 가는 망자의 넋을 기쁘게 헤드리는 노래와 춤과 꽃과 용선의 아름다운 잔치
- 16) 고평이 못동춤 - 부산춤연합, 청주대무용학과
얼키고 설킨 통한의 매듭을 모인 사람 모두가 봄날 신 새벽 갯바람에 씻어 풀어내는 어울림 마당

4부 거리굿 (25일 상오 6시) / 김석출 김유선 일행

뒷전 거리로 굿판에 모여든 여러 잡귀 잡신을 달래어 풀어 먹이는 춘극 엮음.





출연진

김석출

1922년 2월 28일 무계 집안에서 태어나 13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굿노래사실, 형으로부터 장고, 팽쇠를 배우고 15살부터 부모따라 굿판에 나선. 30살 때 김대옥에게서 첫대와 호적을 배우고, 무업 40년이 되는 85년도에 '동해안별신굿'으로 중요무형문화재 82호 기능보유자가 됨. 호적에도 일가를 이루어 호적산조를 창안함.

김유선

1935년 3월 16일 강원도 명주군 안인에서 태어나 25살에 부군 김석출에게서 배워 동해안 무속계에 입문함. 8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82호 기능보유자가 됨. 굿노래사실과 즉흥 재담, 연기에 특출함.

김석출 일가는 전형적인 세습무 가계로서 아들, 딸, 조카, 사위, 등이 모두 어릴때부터 학습에 의해 뛰어난 예능을 보이고 있음. 이번 굿에 함께 출연하는 일행으로는 김용택, 제갈태오, 김동열, 김정희, 김정국, 오태근, 김영희, 김동언, 김영숙, 정채난

동해안별신굿은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에서 세습무가 주재하는 굿으로서 농어민 등 마을사람 모두가 참여하여 마을의 안녕, 행복, 풍어, 사업번창을 기원하는 '풍어굿'과 죽은 사람의 혼령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오구굿'이 대표적이다. 이번 정신대 해원상생굿은 '오구굿'의 제차를 따르되 '비리데기'의 행장을 엮어내는 '오귀풀이' 제차는 생략하였고, 그대신 굿거리 사이사이에 노래, 풍물판, 춤판, 마당굿, 일인극 등을 삽입하여 해원상생의 뜻을 강화는 한편, 불꺼리, 놀꺼리를 좀더 풍성하게 하여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오늘날 민족예술의 대동마당으로 마련한 것이다.

문호근 - 민족음악극 연구소 소장. 가극단 「금강」 대표. 가극 '금강' 등 연출.

정계화 - 판소리꾼. 동편제 강도근 선생 사사(이수자)

안혜경 - 가수. '침묵의 봄', '까치길', '아이에게' 등 노래

김영남 - 가수. '진혼곡', '죽어서 살아' 등 노래

이선우 - 나래연, 동의공업전문대 교수

나래연(擎來鸞)이란?

나래연은 연의 한 종류가 아니라 연마을 총장이신 이선우 교수님이 이름을 붙인 것으로서 "잡을 낚, 올 래, 솔개 鸞" 잡아온다는 뜻을 지닙니다. 젊은 우리의 理想의 "나래"를 펴고 힘찬 날개짓하여 하늘 높이 솟아 올라 분단된 남과 북을 연결시켜 천만 이산가족의 재회를 기원하는 民族 痛恨의 鸞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나래연아 힘차게 날아 올라라."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 연마을은 민족 통일의 염원을 나래연에 띄우면서 실천예술로 승화 시킬것입니다.

오영숙 - 춤꾼. 이매방, 김진홍에게 사사. 동래춤 전수. 첫번째 정신대해원상생대 동굿 연행

신은주 - 춤꾼. 춤패 「배김새」 대표 역임. 「백의」등 안무.

변지영 - 춤꾼. 「연무희」 단원
이성원 - 춤꾼. 춤패 「춤누리」 대표
강은교 - 시인. 동아대 교수. 시집 「허무집」 「소리집」 산문집 「추억제」 「도시의 아이들」 있음.
장정임 - 시인. 시집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경남 여성회 회장
최영철 - 시인. 시집 「아성은 빛나다」 등.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산지부 사무국장
임연옥 - 시 낭송가. 색동어머니회 활동
김광복 - 전남대 교수. 전남시립국악 관현악단장. 「광주 진혼곡」 작곡
이흥대 - 풍물꾼. 함안 칠북 농악 이수.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문화부장관상 상쇠부문 수상
박은익 - 재즈연주자(색스폰). Pop and jazz 단장
부산 남산놀이마당 - 92년 창단. 생활현장 공연 활동. 「뽕과전」 등 출연.
 김경철, 설태영, 정연태, 우진수, 설영성, 강성주 등
연합풍물패 길놀이 참가 단체
 해운대달맞이 농악단, 낙동민속보존회, 각대학 풍물패 동아리, 부산풍물패 회원모임 이음새, 부산양산노동자 풍물패연합, 카톨릭풍물패협의회 하늘소리, 보육을 위한 모임, 고리원자력 풍물패, 제일제당 백설풍물패, 풍물패 소리벗, 교사놀이패 추입새, 전통민속연구회 옛소리, 풍물패 삶을 여는 소리, 풍물패 다하미, 놀이패 시나위, 민속문화원 금정산 풍물반.
부산 참교육 학부모회 어린이들 - 첫번째 정신대 해원상생 대동구 출연.
 채남기, 이재은, 이정은, 김윤수, 김태현, 정혜주, 박준성, 박태희, 박창희, 강선정, 고은현, 최재형, 이경진, 최재왕, 이시진, 용현석, 임상욱
노래야 나오나라 - 88년 창단. 「나의 살던 고향은」, 「좋은 노래 부르기 공연」 등 공연.
 김현인, 김덕안 외
부산 배김새 - 85년 창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리랑 진혼무」, 「그날 이후」 등 공연.
 신은주, 홍미경, 하지훈, 박계영, 박영애, 박정은, 한영수, 정경리, 유윤영, 최윤정, 황정옥
부산 춤패 춤누리 - 92년 창단 「아침 갈매기」, 「박창수열사 추모곡」, 「들꽃 한아름으로」 등 출연.
 박성연, 김현정, 김정경

부산여자전문대학 무용과 재학생 - 동래학춤 전수, 지도교수 : 김미숙
부산춤패연합
서울 놀이패 한두레 - 74년 창단. 소리굿 '아구' '우리공장 이야기', '아버지 행군' 등 공연.
 마승락, 전중출, 서창수, 최영석, 여현숙, 송연수(극단 한강)
부산 극단 자갈치 - 86년 창단. '복지에서 성지로', '내 청춘 파도에 신고' 등 공연.
 전병복, 정영배, 전병석, 노호성, 손재서, 강미정, 신은정, 오효정, 안경화
부산 놀이패 일터 - 87년 창단. 「다시 또 다시」, 「철로역정」 등 공연.
 서영수, 박성지, 김평삼, 황후남, 김주원, 김성관
동의공업전문대 동아리 「연마을」

연출·제작진

결개그림 제작 - 박경효(화가)
깃발제작·설치 - 이석금(조각가), 김상화(작가), 광영화(작가), 이재진(작가)
음향·조명 - 부경기획
영상기록 - 이호근(영상작가)
사진 - 김인환(사진작가)
홍보물 제작 - 김정희(아트 디자이너)
먹거리 - 김휘중, 김인기(한살림 순두부 건강식당)
 한경수(양산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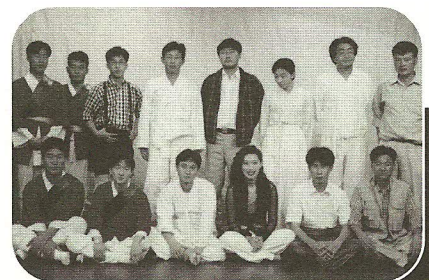
무대감독 - 최정완(극단 자갈치 대표), 정영배(극단자갈치 기획실장)

연출단

안태호(민족미학연구원)
 김대철(한국차문화회 회장)
 황해순(극단 '자갈치' 상임연출)
 정승천(춤꾼. '어화등등' 대표)
 남기성(놀이패 '한두레' 예술감독)
 이성원(춤패 '춤누리' 대표, 부산시립무용단)
 전병복(극단 '자갈치' 연출)
 서영수(놀이패 '일터' 대표)
 이상운(춤패 '춤누리')

총연출

채희완(부산대교수, 미학)



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로 강제 연행해간 우리들의 꽃다운 딸들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동족으로서 눈물 없이 반성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는 무려 15-6만 명이란 숫자가 발표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일본 정부만이 알고 있으나 그들은 이것을 시종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수서 김기이 회입니다

이것을 일본정부에서 정식으로
 제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
 것입니다.

해원상생곳에

본국대로 끌려간 남자 노무
 되었지만 이 여자 정신대
 이것은 역사에서 저지른 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문제가 정식으로 우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되었지만, 마침내 내 문학
 문단에서는 처음으로 여자
 〈수라도〉등에서도 끌려
 있다고 해서 우겨대는 바
 수락한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못한 것을 생
 지들의 강권으로 부득이 해
 해원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큰 바 없습니다. 오직 이에
 지들의 성원을 기대할 뿐입
 가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남북한 여성들과 일본 여
 대상자료관 설치 등을 결의
 운동에 큰 용기를 주는 일
 여론을 바탕으로 억울한 정
 사업에 더욱 용기를 가지고

마 소임에 충실하고자 하오
 해원사업에 유종의 미를
 부탁드립니다.

1993년 5월 8일

인사말씀은 이 곳의 인사말씀은
 11월 28일 돌아가셨습니다. 선생의 간
 가 명복을 비읍니다.

위라고 속여 썼지만 그들의 내각회의 서류에서 그
 로 토의 결정했다는 사실이 이미 발표된 이상 이
 는 저들의 반인도적 처사였다는 사실이 관명된

민족적 거사인 애국적 동참을

(故) 김 정 한 (첫번째 · 두번째 정신대해원상생대동국 대회장)

2차대전 종료 후의 한일협상에서 일본군에 근로
 자들의 보상문제는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거론이
 문제는 전연 불문에 붙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리 민족의 살을 깎는 듯한 일제의 죄악사라 아니
 엄청난 사건은 결코 역사의 뒷골목에 숨겨질 수
 만시지탄은 있으나 해방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리들 사이에서 여론화되고 해원사업을 벌이게 된
 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는 내게 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굳이 사언
 작품 속에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란 것이 한국
 정신대 문제를 취급한 것이고, 그 뒤 〈뒷미 나
 가는 딸애들의 애처로운 정경을 소재로 한 것들
 략에 할 수 없이 대회장 두 사람 중의 한 자리를

정신대에 관한 글 몇 편 썼을 뿐 정신대를 위해
 각하면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동
 회장직을 맡긴 했지만 그 억울한 동포여성들의
 할 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아무런 대책도 세워
 관한 해박한 정보와 해원책을 고려해 온 여러 동
 니다. 최근의 외신보도를 보면 일본 도쿄와 오사
 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성대표도 종군위안부(여자정신대)의 진상규명과
 했다고 한 즉, 이것은 우리들의 여자정신대 해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신대의 영혼과 현존 여성들에 대한 보상과 해원
 매진해야 할 줄 압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본인도 힘 미치는 대로 맡은
 니 국민 여러분도 민족적 거사로 생각하시고 이
 거들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이 글은 첫 번째 · 두번째 정신대해원상생대동국의 공동대회장을 역임
 로 남기신 마지막 친필 글입니다. 선생께서는 오랜 투병생활 끝에 1996년
 국한 유지를 모시어 세번째 정신대해원상생대동국을 다시금 벌이면서